제주 방선문(訪仙門)의 선경(仙境)적 이미지와 명승적 가치†

노재현 · 신상섭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Study on Enchanted Image and Scenic Value of Jeju Bangseonmun

Rho, Jae-Hyun · Shin, Sang-Sup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ABSTRACT

Bangseonmun(訪仙門) is the attractive spots where Shinseon(神仙: Taoist hermit) ideas that makes Mt. Younju(瀛洲山) or the current Mt. Halla mystique has still remained and situated at Hancheon(漢川) Valley. Bangseonmun, which is known as 'Landscape Setting Here(L_{SH})' of Youngguchunhwa(瀛丘春花), which is one of ten famous spots in Youngjusipkyung(瀛洲十景), and Deulreonggui refer to 'the gate to the place where Shinseon is living.' It is described as the path to Mt. Youngju for Shinseon and the boundary between the mundane world and the world beyond the mundane. The old scholars at Mt. Halla entered the gate and met Shinseon, carving the word or picture of Bangseonmun, Whanseonmun, Wuseondae or Deungyounggu so as to structure the enchanting image on Bangseonmun. It is the poetic expression of the taste for the arts, breaking from the troublesome mundane world and riding the white deer to become the Shinseon, the desire for the ideal world in Taoism, and the identity of four famous scenic spots of Bangseonmun. Besides its enchanting meaning and the locational value of Bangseonmun, geological features of the valley and river and ecological value prove its unique value as a natural scenic beauty. Not to mention the locational identity and enchanting meaning of the poets carved in Meeaegak of Bangseonmun and the scenic view of 'Youngguchunhwa' as the subject of 10 famous scenes of Youngju, it is the place for communing with nature with the natural beauty of Bangseonmun Valley. As the cultural place for being together with Jeju people, it simultaneously shows the typical model as a scenic spot in our living.

Viewing the scenic value and standard from the aspect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Law, Bangseonmun Valley in Jeju must be the typical place and space that meet the requirements to become scenic sites.

Key Words: Mt. Halla, Hancheon Valley, Taoist Hermit, Mt. Youngju, Scenic Beauty

국문초록

방선문(訪仙門)은 한라산의 옛 이름인 영주산을 신비롭게 하는 신선사상의 흔적이 가장 역력한 명소로 한천계곡에 자리잡고 있다.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구춘화(瀛丘春花)'의 대상장으로 널리 알려진 방선문(訪仙門)과 들렁귀[登瀛丘]는 문자 그대로 '신선이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며, 신선의 산 영주산으로 이르는 통로이자 속세와 탈속의

†: 본 논문은 2010년도 우석대학교 교내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Sang-Sup Shi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Woosuk University, Jeonbuk 565-701, Korea, Tel.: +82-63-290-1492, E-mail: ssshin@woosuk.ac.kr

경계로 그려지고 있다. 조선조 선비들은 신선의 고향 한라산을 무대 삼아 방선문, 환선대, 우선대 그리고 등영구의 제액(題額)을 바위에 각자(刻字)함으로써 신선의 문에 들어, 신선을 부르고, 신선을 만나, 신선의 세계로 오르는 선경의 이미지를 방선문에 구축해 왔다. 이는 세속의 번거로움을 털고 한라산 신선이 되는 풍류 행위의 시적 표현이며, 도교적 이상세계에 대한 염원으로, 방선문 4승경의 장소 정체성을 이루는 핵심이다. 방선문이 갖는 선경적 장소성뿐만 아니라 계곡 및 하천경관을 이루는 지질지형학적 특성과 식물생태학적 가치는 방선문이 '자연경관으로서 명승'으로도 부족함이 없음을 보여준다. 고찰 결과를 종합할 때 방선문은 마애각에 새겨진 제영의 의미가 갖는 장소정체성과 선경적 의미 그리고 영주십경의 대상장이자 '영구춘화'의 시점장으로서는 물론 방선문 계곡의 자연적 아름다움을 바탕으로 선인과 자연과의 만남을 통한 교감의 장소로 유전되어 왔다. 지금도 제주민과 호흡하는 문화공간으로 지속되고 있음은 생활명승의 전형성 또한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 문화재보호법의 명승적 가치와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제주 방선문계곡은 명승의 조건에 가장 부합되는 전형적 장소이자 공간이라 할 만하다.

주제어: 한라산, 한천, 신선, 영주산, 경관미

Ⅰ. 서론

방선문은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절경으로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일컫는 영주십경 중 하나인 '영구춘화'의 대상장이다. 현재 제주도에서 국가지정 문화재인 '명승(名勝)[1]'으로 지정된 곳은 서귀포 정방폭포 단 1개소에 불과하지만, 제주도는 명승의 지정 취지에 부합되는 많은 자원과 명소를 보유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중에서 방선문은 현재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지만 자연 풍광이 뛰어날 뿐 아니라 다수의 문화경관적 요소가 함축된 대표적 승경 중에 하나이다. 아름다운 풍광에는 반드시 그를 품제하여 입증하는 멋진 시문이 뒤따르듯 방선문에는 다수의 시와 선인(先人)들의 이름이 돌에 아로새겨져 있다. 제주도 방선문 계곡에 마애각으로 표현된 230개 이상의 제명(題銘)과 10수의 제영(題詠)은 이곳을 찾은 옛 선인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남기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 못지않게 다채로운 볼거리가 되고 있다(현행복, 2004). 이렇듯 방선문은 자연생태공간이며, 제주를 찾은 옛 선인들의 정취가 고스란히 남은 역사문화공간이지만 아직까지도 외지인에게는 생소한 공간으로 남겨져 있다.

지금까지 국내 문화재 지정 및 관리의 객체는 주로 역사문화재에 집중되어 왔으나, 근래에 들어 자연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려한 자연유산이 각종 개발사업과 경관 교란으로 물리적 훼손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임에 비추어 이와 같은 추세는 긴요한 현상이 아닐 수 없으며, 추가적으로 자연문화재의 지정은 물론 지속적인 보존 및 관리대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명승은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문화재 중 천연기념물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 업무는 거의 무관심 수준으로 방치되어 왔다(김학범, 2009)는 지적은 과언은 아니다. 1970년 명주 청학동의 소금강이 국가지정 명승 제1호로 지정된 이후 2009년 12월 말 현재 지정된 명승은 총 67건이고, 1건이 지정 예고되어 있듯이, 2005년도 이후 지정 건수가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명승 관련 조사·연구 또한 일천한 실정이었으나, 최근 들어 많은 연구 성과(신승진, 2003; 문화재청, 2003; 2004; 2005; 2007b; 2007c; 2007d; 2007e; 2008a; 2008b; 이진희, 2005; 이재근, 2009a; 2009b)를 거두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이 주체가 되어 명승 지정 확대 및 보존관리, 그리고 활용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고무적이며 시의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국내 명승의 유형은 크게 자연경관으로서의 명승과 역사문화경관으로서 명승으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자연의 힘에 의해 형성된 자연물 또는 자연현상으로 예술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곳이나 저명한 곳'으로 정의되고 있다[2]. 후자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에 의해 생성된 자연과 인문의 복합체로서 예술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나 저명한 것'이라는 지정기준이 정해져 있다(김계식, 2009). 전통 명승은 명인(名人)과 명소(名所)의 만남으로 성립되며, 인간과 자연과의 만남이나 교감이 배제된 자연경관은 결코 명승이라 보기 어렵다(이종묵, 2006; 최석기, 2008)는 지적은 명승의 특성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제주 방선문의 입지와 경관특성을 조명하는 한편 마애각자로 표현된 방선문의 선경적 경관상 및 전래경관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현재의 이용 상태 등을 분석·해석함으로써 방선문의 공간 특성을 구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를 근거로 방선문이 탁월한 공간정체성과 명승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논거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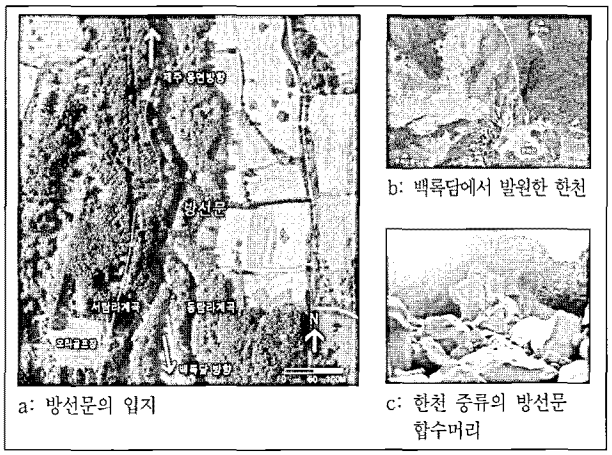


그림 1. 방선문의 위치도와 현황
자료: http://local.daum.net/map/index.jsp

방선문은 제주공항에서 7.3km, 제주교도소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라골프장 방면으로 시작되는 약 1km 정도의 탐라계곡 하류 한천 일대를 지칭한다(그림 1 참조). 방선문은 입구 천장에 방선문이라는 마애명이 큰 글씨로 음각되어 유래된 것(그림 5a 참조)으로 길이 약 10m, 높이 5~6m, 폭 6~7m 정도의 큰 바위가 한천 양쪽 계곡을 가로지르고 있다. 방선문이 위치한 한천 하구인 용연[3]은 영주십이경의 하나인 용연야범(龍淵夜泛)으로 옛 선비들이 밤에 달빛을 타고 뱃놀이를 하며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현장조사로 이루어졌다. 문헌연구는 한천의 지형경관적 특성 등의 자연환경을 개관하고 한라산의 옛 이름 영주산과 방선문 관련 전설 등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는 상관(相觀: physiognomy)에 의해 주변의 식물상을 조사하고 경관 특성을 기재한 뒤 사진 촬영하였다. 한편, 방선문이 갖는 문화경관적 특성을 고찰할 목적으로 방선문 바위에 새겨진 각자와 '영구춘화' 관련 제영을 각각 현행복(2004)의 '방선문 마애각 제영기'와 오문복(2004) '영주십경 시집'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하였다. 특히, 방선문 4승경으로 알려진 4개 제액(題額)에 대한 유래와 상징성 및 공간특성 등 선경적 이미지를 집중 고찰하였으며, 제영시에 대해서는 시어의 어휘소 분석을 통해 신선 등 도교적 이미지와 경관언어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얻어진 자연 및 역사문화경관으로서의 방선문의 특성과 가치를 현재 문화재보호법상 명승의 세부적 특징과 지정기준에 의거한 분류표에 기재하고 비교 고찰함으로써 방선문의 명승적 가치를 논의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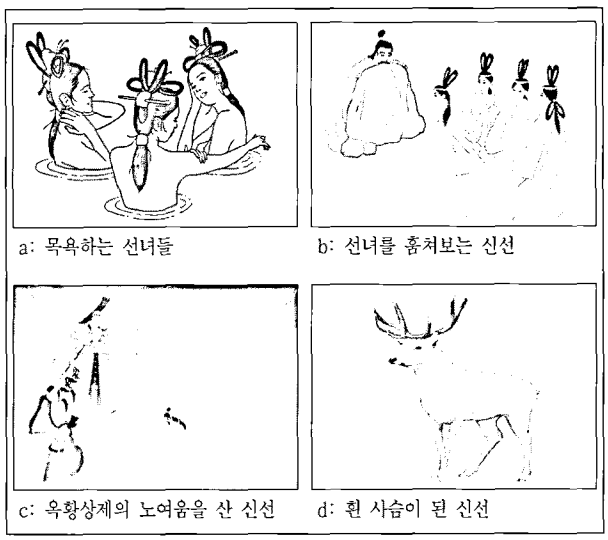
1. 전설로 본 영주산과 방선문

한라산은 예로부터 뭍의 봉래산인 금강산, 방장산인 지리산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일컬어져 왔다. 진시황(秦始皇) 때 동남동녀 5백 명을 실은 대선단을 영주산으로 여겼던 한라산에 보내 불로초를 찾도록 한 전설이 전해지듯(제주문화원, 1999; 양정식, 1999; 강정효, 2003; 이영권, 2004) 일찍부터 한라산은 외부세계에 떨어진 신비스러운 섬 속의 이상향으로 알려지고 있다. 옛 선인들은 한라산을 일컬어 신선이 살고 있는 물가의 산, 영주산이라 하였다. 방선문은 영주산에 이르는 대문이자, 탐라계곡이 시작되는 곳으로 영주십경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시점장이자 대상장이다. 신선사상과 관련된 한라산의 지명으로 동무대협(東巫小峽)을 들 수 있다. 김상조 역(1992)의 「탐라지」에는 "「고기(古記)」에 이르기를 한라산의 원 이름은 원산(圓山) 곧 원교산(圓嶠山)이고, 그 동쪽이 곧 동무소협으로 신선이 사는 곳이다. 그 동북쪽에 영주산이 있어 세상에서 탐라를 일컬어 동영주라 한다"고 하여 한라산이 신선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신선사상을 반영하는 다른 지명으로 방암(方巖)이 있는데, 방암은 한라산 꼭대기에 위치하여 그 형상이 네모반듯하여 사람이 다듬어 만든 것 같고, 바위 아래 향부자가 군락을 이루어 향기가 온 산에 가득하고 관현악을 듣는 것 같이 황홀해서 세속에서 전하기를 신선이 항시 노는 곳이다."라고 했다(오상학, 2006).

예로부터 방선문 계곡은 시인과 묵객들이 즐겨 찾기도 했던 곳으로, 이곳에는 다수의 마애각 제명과 제영 등이 발견된다. 각자의 주체는 대부분 제주에 부임했던 목사나 판관, 유배왔던 적객들이 계곡 풍류를 즐기면서, 때론 마음을 달래면서 바위나 절벽에 새겨 남긴 흔적들이다. 김해경(2007)은 각자란 바위라는 물성(物性)으로 영원불변성을 포함하여 바위에 글을 새기는 최소한의 가시적 행위로 비가시적 세계를 지향하는 행위로 보았다. 한편, 한천계곡에는 옥황상제와 선녀 그리고 흰 사슴이 된 신선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방선문 계곡에서 선녀가 목욕하는 것을 몰래 지켜보려던 신선이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사 백록(白鹿)으로 변해 홀로 백록담을 지켜야 했던 전설(그림 2 참조) 속에는 신선의 땅 한라산의 영험성과 비가시적 세계인 선경에 대한 염원이 잘 표현되고 있다.

2. 방선문과 한천의 경관상

한천(漢川)은 길이 16km의 제주도 최장 하천으로 한내 또는 대천이라고 부르는데, 「탐라지」와 「탐라지도병서」[4]에도 한천은 모두 '대천(大川)'으로 표기되고 있다(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오상학, 2006). 제주도 하천들은 주로 한라산 북부에서 발원하여 방사상으로 뻗어나가며 지반은 투수성이 큰



a: 목욕하는 선녀들 b: 선녀를 훔쳐보는 신선

c: 옥황상제의 노여움을 산 신선 d: 흰 사슴이 된 신선

그림 2. 방선문 전설의 애니메이션
자료: http://www.jejumall.com

조면암질로 이루어져 평소에는 건천을 이루는데, 한천 역시 대부분의 구간에서 건천의 형태를 띠지만 곳곳에 소(沼)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 바닥과 하천변으로 단층과 풍화혈을 이루는 바위가 산재해 있다(강정효, 2003). 한천의 하구는 제주시 용암동의 용연으로 만조시 해수가 유입되어 물이 가득 차 있으며 높이 7~8m의 수직절리가 펼쳐져 절경을 이루는데 용연에서 약 200m거리에 용연과 함께 제주 시도기념물 제57호로 지정된 용두암이 있다. 방선문은 한천의 상류 약 6km 지점인 오등동에 위치하는데, 상류에서 내려오는 두 줄기의 계곡이 하나가 되는 합류머리에 나타나는 아치형의 거대한 암석 터널이다(그림 3c 참조). 한라산 정상 백록담 북쪽에서 발원된 한천(그림 1b 참조)은 오등동의 방선문 계곡, 오라동 등을 거쳐 하류의 용담동 용연을 통해 바다로 흘러들어 간다. 탐라계곡 발원지 상류구간으로는 용진각, 왕관바위, 탐라계곡, 삼각봉, 삼단폭포 등의 비경이 펼쳐지면서 깊은 'V'자 골짜기를 이루며 흐르면서 수직절벽이 형성시킨 이끼폭포, 비단폭포 등의 폭포가 발달되어 있다(강문규, 2003). 하천바닥은 제주의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로 용암이 분출할 때의 거대한 화산탄, 화산역 등이 같이 분출하여 오랜 동안의 풍화와 유수에 의한 깎임이 발달해 있을 뿐 아니라 양쪽 절벽에는 구실잣밤나무(*Castanopsis sieboldii*), 종가시나무(*Quercus glauca*), 붉가시나무(*Quercus acuta*),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사스레피나무(*Eurya japonica*), 광나무(*Ligustrum japonicum*), 조록나무(*Distylium racemosum*), 식나무(*Aucuba japonica*) 등의 난대성 식물이 혼생하며, 그밖에 예덕나무(*Mallotus japonicus*), 팽나무(*Celtis sinensis*), 자귀나무(*Albizzia julibrissin*), 벚나무(*Prunus serrulata* var. *spontanea*), 말오줌때(*Euscaphis japonica*) 등의 낙엽활엽수가 공생한다. 또한, 바위 주변으로는 마삭줄(*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석위(*Pyrrosia lingua*), 콩짜개덩굴(*Lemmaphyllum microphyllum*) 등의 식물이 덮혀있어 암벽의 신비함과 자연미를 높여주고 있다. 방선문 주변 계곡의 식생단면을 볼 때 계층구조와 종구성이 다양하여 온대 극상림의 전형을 보이는 곳이다(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제주도 계곡의 성인(成因)을 분류하면 크게 침식계곡과 용암계곡, 열곡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성인은 3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은 침식과 열곡이 같이 나타난다. 이 중 방선문 계곡의 지질지형학적 현상들은 굴식작용(plucking)[5]과 마식작용(abrasion)[6] 그리고 덴드라이트(dendrite)[7]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다(제주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006). 한천 역시 대부분의 구간에서 건천의 형태를 띠지만 중간 중간 소(沼)가 형성되어 있으며, 하천 바닥과 하천변으로 단층과 풍화혈을 이루는 바위들이 산재해 있는데(그림 3 참조), 이는 용암류의 판상절리면이 강물의 작용으로 차별침식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강문규(2003)에 따르면 방선문은 두꺼운 용암류의 하부에 발달된 수평으로 깨진 틈들이 정규적으로 형성된 판상절리가 하천수에 의해 연속적으로 침식을 받음으로써 한 장씩 무너진 결과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방선문은 일종의 용암교(鎔巖橋)로 아치형의 지형경관이 탁월한 곳이기도 하다.

a: 굴식 및 마식에 의한 계곡지형 b: 풍화혈의 하상지형 c: 아치형의 용암교 방선문

그림 3. 방선문 계곡의 지형경관
자료: 필자 촬영

그림 4. 방선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문화행사
자료: http://www.issuejeju.com/news/article

한편, 지금은 개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계곡 양안 절벽에 참꽃(*Rhododendron weyrichii*)[8]이 많아 봄이면 계곡 전체가 참꽃으로 덥혔다고 전해진다. 더욱이 방선문 주변은 곳곳에 맑은 물이 고여 있어 물속에 반영(反影)된 분홍 꽃이 비치어 계곡은 바닥까지 온통 꽃으로 덮인 듯 했다고 한다(이영권, 2004). 이곳 계곡에서는 2004년부터 매년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열린음악회가 개최되어 판소리 등의 가창, 부채춤, 합창, 사물놀이, 축연무, 제주민요, 입춤, 판굿 등의 국악 관련 가무예술과 시조 및 시 낭송, 바둑 시연이 열리는 등 이벤트 장(場)으로 이용된다(그림 4 참조).

3. 제액으로 본 방선문의 선경적 이미지

현행복(2004)에 의하면 '방선문'에는 제명(題銘) 243개, 제영(題詠) 10개와 더불어 방선문, 등영구(登瀛丘), 환선대(喚仙臺), 우선대(遇仙臺) 등의 4개 제액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4개 제액은 방선문 4승경이라 하듯 방선문의 공간 특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상징어이자 핵심 이미지라 생각된다. 이들 4개 제액에 대한 문헌고찰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선을 찾아가는 관문 방선문

공간의 이름이기도 한 '방선문'이란 제액(그림 5a)은 방선문 우측 천장에 크게 새겨져 있다. 최익현의 「유한라산기(遊漢羅山記)」 원문(최익현, 1931)에 "다른 마애각은 옛사람이 새겼고, 방선문과 등영구 여섯 자는 최익현 또는 그 일행이 새겼다(夾刻訪仙門及登瀛丘六字 亦有前人題品)"라는 내용과 '방선문'이라는 마애각 오른편에 '최익현 이기온 래'라는 제명을 들어 현행복(2004)은 '방선문'이라는 제액을 세긴 장본인이 면암 최익현으로 보았다. 최익현은 제주도 유배생활을 마친 고종 12년(1875년) 제주 출륙에 앞서 3월 청장년 10명과 짐꾼 5~6명을 데리고 이곳을 통해 한라산을 등정했는데 「유한라산기」에는 다음과 같이, 푸른 절벽과 식생 그리고 옛 사람들의 각자 등에 대한 놀라움 등 방선문 승경에 대한 경관적 감흥이 잘 표현되고 있다(http://www.minchu.or.kr).

"……일행이 남문을 출발하여 10리쯤 가니 길가에 한 시내가 있는데, 이는 한라산 북쪽 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이 모여서 바다로 들어가는 곳이다. 나는 언덕 위에 말을 세우고 벼랑을 의지하여 수십 보를 내려가니 양쪽 가에 푸른 암벽이 깎아지른 듯이 서 있고 그 가운데에 큰 돌이 문 모양으로 걸쳐 있는데, 그 길이와 너비는 수십 인을 수용할 만하며 높이도 두 길은 되어 보였다. 그 양쪽 암벽에는 방선문(訪仙門), 등영구(登瀛丘)란 여섯 자가 새겨져 있고, 또 옛 사람들의 제품(題品)들이 있었는데 바로 한라산 10경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문의 안팎과 위아래에는 맑은 모래와 흰 돌들이 잘 연마되어 그 윤기가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였고 수단화철쭉꽃이 열을 지어 좌우로 심어져 있는데 바야흐로 꽃봉오리가 탐스럽게 피어나고 있어 그 또한 비할 데 없는 기이한 풍경이었다. 한 참 동안 풍경에 취해 두리번거리며 조금도 돌아갈 뜻이 없었다.……"

또한, 김석익의 「삼재집」에서는 방선문을 "한내 사이 좌우로 낭떠러지 마냥 걸쳐 있는 곳에 커다란 바위가 엎어져 있음이 마치 무지개와 같은 형태의 문을 일컬어 방선이라고 한다(大川之間左右懸崖中有大石俯作虹門名曰訪仙)."라고 방선문의 형태를 잘 표현하고 있다(현행복, 2004). 방선문은 글자의 의미 그대로 '신선을 찾아가는 문'이다. 혹은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예전에 이곳을 거쳐 가면서 '영험스런 산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의미로 붙인 별칭이기도 하다. 불로불사(不老不死)의 약초가 있어 신선이 산다고 믿는 한라산을 삼신산인 동영주 즉 신선이 사는 영험스런 산으로 들어서는 관문(關門)이라는 상징성이 잘 표현된 것이다. 한라산을 두고 '신들의 고향' 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한라산 그 자체가 바로 영주신(瀛洲神)이며 방선문은 결국 그 신을 만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인 셈이다.

2) 신선을 부르는 공간 환선대

환선대는 '신선을 부르는 대'란 의미를 지닌 곳으로서 방선문 남단의 편편한 바위를 일컫는다. 들렁귀를 남쪽 좌측 절벽 쪽으로 빠져나오면 초서체로 새겨진 '환선대(喚仙臺)'라는 제액과 오언율시의 제영이 나타난다(그림 5b 참조). 활달한 초서체의 붓놀림으로 '환선대'란 제액과 오언율시의 시를 써내려간 김영수의 서체는 '신선을 불러본다'는 본래의 의미와도 잘 부합한다(현행복, 2004). 환선대란 신선을 찾아 문에 들어섰는데 신선을 만나지 못하자 누대에서 신선을 불러 본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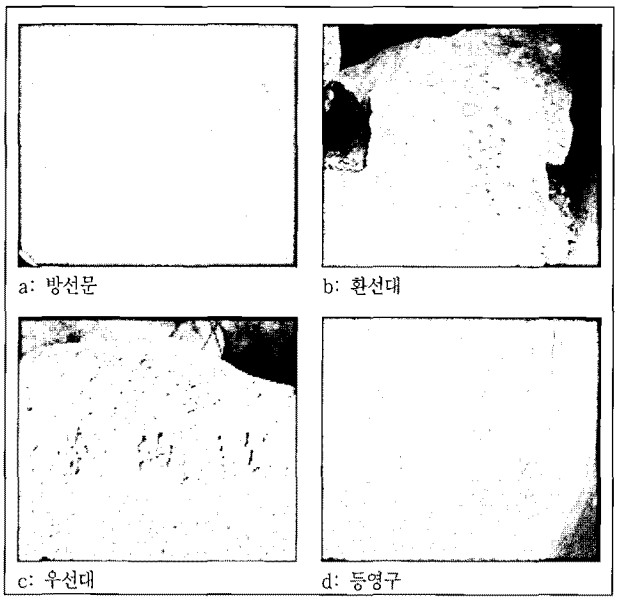


그림 5. 방선문 4승경의 마애각자
자료: 필자 촬영

뜻이 함축된 것으로 보인다. 환선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우선대와는 그 어휘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이질적이다. 신선과의 조우를 목적으로 왔어도, '신선을 기다리다 우연한 만남'과 '필연적으로 신선을 불러낸 만남'과는 그 의미와 느낌이 확연히 다를 것이다. 환선대 바위 좌측에는 '이원조(李源祚)'라고 새겨진 이원조 목사의 제명이 보인다. 그는 현재 제주의 대표적 경승으로 회자되는 영주십경을 그의 저술 탐라록에 '영주십경제화병'으로 품제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노재현 등, 2009). 이 시기 이원조가 명명한 영주십경은 방선문의 아름다움을 읊은 영구상화를 비롯하여 정방관폭, 귤림상과, 녹담설경, 성산출일, 사봉낙조, 고수목마, 산포조어, 산방굴사, 영실기암이다.

3) 신선을 만나는 공간 우선대

방선문 남단 동쪽편 좌측 계곡을 따라 50여 미터쯤 올라가면 거대한 바위 군락이 나타난다. 계곡 가장자리 널따란 바위가 마치 누대와 같아 붙여진 곳이 우선대이다(그림 5c). '신선을 만나보는 누대'란 의미가 담긴 석대(石坮) 주변은 계곡 상층부를 덮은 수목들로 관개경관(canopied landscape)을 형성하고 빛과 어둠이 교차되어 신비감을 더한다. 화암 신홍석은 '등영구'란 제하의 칠언율시에서 "그 중에 빼어난 절경 보고 싶거든 그대는 먼저 우선대에 올라보시라(欲識箇中奇絶處 請君須上遇仙臺)"고 시점 우선대의 경관적 탁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윤식의 속음청사에도 우선대를 다녀간 기록이 남아있다. "…돌들을 헤집으며 위로 몇 층 기어 올라가면 우선대가 있다. 이곳 또한 충분히 완상할 만 했다(攀石而上幾層有遇仙臺亦堪賞玩矣).… "라고 기록하고 있다(현행복, 2004). 현재 이곳에는 우선대란 글씨만 희미하게 남아있어 그 제액의 주인공을 알 길은 없으나 바로 옆 암벽 하단에 이근복이라는 이름과 오언절구의 시가 남아 있다. 한라산 정상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던 물줄기가 우선대에서 한번 굴절한 다음 방선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지형경관을 보이고 있다.

4) 신선계로 들어가 노니는 등영구

영조 15년(1739년), 홍중징은 역대 제주 목사로서는 처음으로 방선문에 마애각 제영을 남겼다. 그는 이곳 바위에 등영구란 제액(그림 5d)과 오언절구의 시와 함께 용연 암벽에도 취병담(翠屛潭)이란 제액을 남겼다. "들렁귀에 서고 보니 나 역시 신선이네(瀛丘我亦仙)"라고 표현한 옥계 한창유의 감흥 역시 방선문 등영구의 공간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등영구가 각자된 방선문의 이곳을 예로부터 '들렁귀'라 했는데, '들렁귀'란 말은 본래 '뚫어진 언덕' 혹은 '들러진 언덕'이란 뜻의 순수한 제주고유어다. 한자어표기로는 '천롱곶[穿弄串: 뚫+렁+곶]', 혹은 '거암곡 등의 이두식 표기가 쓰였던 기록이 전하는데(한글학회, 1984; 제주시·제주문화원, 1996; 양정식, 1999) 등영구는 '신선의 영산으로 오르는 언덕' 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도 들렁귀와 발음이 비슷한 조어(造語)다. 이곳은 판소리 「배비장전(裵裨將傳)」 열두 마당 중 하나인 배비장이 기생 애랑의 목욕장면을 훔쳐보던 '한라산선유(漢拏山花遊)'의 장소인 '수포동 녹림간(水布洞 綠林間)'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http://jeju.grandculture.net). 봄철 방선문 계곡 일대는 참꽃으로 장관을 이루면서 목사 일행들을 비롯한 많은 문인 묵객들이 즐겨 찾았던 조선조 사대부들의 대표적 풍류 공간의 정취는 이러한 각자를 통해 지금도 유전되고 있다.

이와 같이 방선문은 신선경의 세계를 들어서는 관문으로서 속세와 탈속을 잇는 경계로 그려지고 있는데, 신선의 산 영주산에 이르는 통로로의 대표적 장소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방선문, 환선대, 우선대 그리고 등영구의 제액 흐름을 기승전결(起承轉結)로 추론한다면 신선을 찾고, 부르고, 만나서 그리고 노니는 장소로 전개됨으로써 선경의 이상세계에 다다르는 과정 및 경로가 자연스럽게 방선문의 장소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스토리보드(storyboard)가 되고 있다.

4. 제영을 통해 본 선경적 언어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방선문 계곡에 마애각 제영기가 확인되는 것은 총 10건이다. 이 중 신분이 확인되는 것은 5건으로 조선 영조~고종기 제주목사와 판관을 지냈던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중징 목사의 '등영구'와 김영수 목사의

표 1. 방선문 마애각 제영기로 본 도교적 경관언어

작정자	시기	제영	도교적 언어	경관 언어
홍중징	영조14년(1738) 제주목사	등영구	영산으로 들어가는 어귀(登瀛丘) 신선이 타고 다니는 난새와 학새(鸞鶴)	돌구멍(石竇), 바위틈의 꽃(巖花)
한정운	순조7년(1807) 제주목사	차벽상운	선인을 만나기 어려움(仙人不可見)	어지러이 널려 있는 돌(亂石), 응달진 곳에 핀 꽃(幽花)
이의겸	순조27년(1827) 제주판관	무	속진을 떠나 자연을 즐김(淸遊)	포구, 산등성이(山肩), 붉은 해(紅日)
임태유	고종22년(1885) 미상	무	사슴을 타고 놀던 신선(騎鹿遊仙)	벽 사이(壁間), 여린 돌문(石門開)
김 치	미상	무	신의 도끼(神斧), 신선과 속인(仙俗)	쪼개어져 열림(判開)
조의순	고종5년(1868) 제주목사	무	-	꽃길(花徑), 도끼로 다듬음(斧鑿)
한창유	미상	무	신령스런 언덕(瀛丘), 나 역시 신선(我亦仙), 옥도끼(玉斧)	깊은 산골짜기(嵌窓), 맑은 냇물(玉溪)
영초	미상	무	선인을 만나보기 어려움(仙人難可見) 신선 고향에서의 나무꾼(瀛樵)	벼랑이나 바위에 난 굴 구멍(洞穴), 계류, 제비꼬리(燕尾), 구름연기(煙雲)
양응상	미상	-	영주섬의 바다(瀛海)	물을 내려주는 산(沃山), 한라산, 돌꽃(花石)
김영수	정조2년(1778) 제주목사	환선대	신선을 불러내는 대(喚仙臺), 배필이 없던 삼신인의 땅(無特地), 신선이 사는 산(神山)	첩첩이 겹쳐진 깊고 큰 골짜기(萬壑), 태고의 기쁨(太古歡)

표 2 . 영주십경 중 영구춘화 제영시로 본 도교적 경관언어

작정자	시기	표제어	도교적 언어	형식	비고
매계 이한우	순조18년(1818)~고종18년(1881)	영구춘화	삼청(三淸), 자하(紫霞), 선계(仙界), 신선(神仙), 벽도(碧桃), 서왕모(西王母)	7언율시	영주십경
난곡 김양수	순조23년(1828)~고종24년(1887)	영구춘화	선국(仙國)	7언율시	
연파 김창현	순조27년(1827)~고종12년(1875)	영구춘화	선(仙), 자하주(紫霞酒), 도원(桃園)	7언율시	
연파 이용식	순조33년(1833)~고종32년(1895)	영구춘화	영경(靈境), 선녀(仙女)	7언율시	
해은 김희정	헌종10년(1844)~1916	영구춘화	별연하(別煙霞), 선녀	7언율시	
양암 유 담	미상	영구춘화	영구(靈邱), 도리원(桃李園)	7언율시	
영운 김계두	순조연간	영구춘화	영구(靈邱), 현포(玄圃), 요지(瑤池)	7언율시	
조남와	순조~고종	영구춘화	직녀(織女)	7언율시	
석호 고영흔	순조~고종	영구춘화	무릉도원(武陵桃源), 신선	7언율시	
남곡 고영하	고종25년~?	영구춘화	영구(瀛邱)	7언율시	
화암 신홍석	철종1년(1850)~민국2년(1920)	영구춘화	신선	7언율시	
락천 김희두	고종원년(1864)~광무8년(1904)	영구춘화	영구(瀛邱), 동문(洞門)	7언고시	
혁암 김경식	고종23년(1886)~민국9년(1927)	영구춘화	영주(瀛洲), 선구(仙邱)	7언고시	
응와 이원조	순조연간	영구만춘	선굴(仙窟)	5언고시	영주십경제화병
소림 오태직	순조7년(1807)~철종2년(1851)	영구만춘	영구(瀛邱), 신부(神斧)	5언고시	영주팔경

'환선대'를 제외하고는 제영이 없이 시만 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소는 단연 '선(仙')으로서 6편의 제영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전설 속의 산인 영주산의 '영(瀛)'인 어휘소로 도입한 것이 4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난학(鸞鶴), 기록유선(騎鹿遊仙), 신부(神斧), 영초(瀛樵), 영해(瀛海), 신산(神山) 등 신선의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어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이 발견된다. 한편, 방선문과 주변의 경관을 표현하고 있는 공통적 어휘소로서는 석(石), 암(巖), 벽(壁), 석문(石門), 계(溪), 동혈(洞穴), 산 등의 지형적 어휘소와 암화(巖花), 화경(花徑), 화석(花石) 등의 식물학적 어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옥도끼를 뜻하는 옥부(玉斧)와 도끼로 다듬다는 뜻의 부착(斧鑿) 등의 어휘 등장은 이곳 지형경관의 절묘함과 신령스러움을 강조한 시적 표현으로 보인다.

그리고 표 2는 영주십경 중 방선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영구춘화' 제영시로 본 도교적 경관언어를 파악한 것이다. 역시 제영자의 신분은 제주목사나 판관 등이며, 표제어는 2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영구춘화이고, 나머지 두편은 영구만춘으로, 7언율시 또는 5언고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소는 단연 '선'으로서 9편의 제영에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영구의 표현을 대신하는 어휘소로 이용된 '영'과 '령(靈)' 은 각각 4편과 3편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선문의 각자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선계, 신선, 동문, 신부 등의 어휘 이외에 서왕모(西王

표 3. 문화재보호법상 명승 지정 기준에 따른 방선문의 가치

유형	세부적 특징	명승 지정 기준	방선문의 명승 가치
자연 경관으로서 명승	산악경관	- 심성암이나 성층암으로 구성된 것 - 산지가 연봉·군봉·단봉 등의 형태 - 융기준평원, 습곡산지, 카르스트 지형과 같은 지형적 특징을 갖는 곳	- 굴식작용(plucking)과 마식작용(abrasion)으로 생성된 다양한 절리 및 포트홀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위계곡과 기암묘석
	화산경관	- 원추화산, 종산화산, 순상화산, 대상화산, 탑상화산 등의 형태 - 용암지형, 용암대지, 용암침식산지, 칼데라호, 애추양상 등과 같은 지형적 특징을 갖는 곳	- 총연장 약 28km인 한천계곡(탐라계곡)의 한라산 백록담 북벽을 발원지로 하는 용암지형적 특성
	계곡·폭포 경관	- 신성암, 성층암, 분출암 등으로 구성된 것. - V자형곡, U자 협곡, 협곡 등의 계곡 특징과 차별 침식에 의한 폭포의 형태 - 용소, 암벽, 암봉, 암주, 암문, 계류 등	- 한천 하류의 용연과 연결 - 암문으로 이루어진 방선문
	하천경관	- 하천 하안 경관: 하천의 발원지	- 단층과 풍화혈로 이루어진 거대 바위계곡 - 용암교 형태의 아치형 방선문
	호수경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안·도서경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동·식물의 서식지	- 동물, 식물 군락지	- 양쪽 절벽에는 구실잣밤나무 등 전형적 난대식물군락 - 계곡 양쪽 절벽의 참꽃(*Rhododendron weyrichii*)군락
역사·문화 경관으로서 명승	역사·문화 경관	- 저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와 자연과 문화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뛰어난 조망경관을 형성하고 있는 곳	- 방선문 계곡에 표현된 230개가 넘는 제명과 10수의 제영 마애각 - 동천적 성격을 갖는 계곡과 전래 경승지 영주십경 중 영구춘화의 대상장
		- 정자, 누 등의 조망점	- 각자를 통해 본 선경의 이미지와 도교 언어 - 경관 조망지점으로서의 환선대와 우선대
		- 마을, 도시 전통유적지, 옛길	해당 없음
		- 정원 원림, 연못, 저수지, 경작지	해당 없음
		- 역사, 문학, 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전설지	- 신선의 산, 영주산의 대문 방선문 - 백록의 전설을 간직한 영주산 - 영구춘화에 새긴 선경, 판소리 열두마당의 하나인 '배비장전'의 무대 - 성(聖)의 골짜기와 유희의 공간을 제공하는 속(俗)의 골짜기가 '좌성우속'의 형태로 공존

母), 삼청(三淸), 벽도(碧桃), 자하(紫霞), 무릉도원, 도원, 도이원, 현포(玄圃), 요지(瑤池), 직녀 등의 도교적 색채가 강한 어휘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음을 볼 때 제영 '영구춘화'와 부합되는 선경적 이미지가 잘 드러나고 있다.

Ⅳ. 결론

제주 방선문의 입지와 경관특성을 집중 조명하는 한편 마애각자로 표현된 방선문의 선경적 경관상 등 전래경관으로서의 면모를 분석 및 해석함으로써 방선문이 명승으로서 탁월한 장소정체성과 자연 및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논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시 아라동 한천계곡에 위치하는 명소 방선문은 영주십경 중 제3경인 '영구춘화'의 대상장으로 자연 풍광이 뛰어날 뿐 아니라 문화경관적 요소가 다양하게 함축된 탁월한 공간 정체성과 명승적 가치를 지닌 대표적 사례이다.

둘째, 방선문은 신선경의 세계를 찾아가는 관문으로서 속세와 탈속을 잇는 경계로 그려지고 있는데, 신선의 산[瀛洲山]에 이르는 통로가 되며, 선경의 이상세계에 다다르는 체험경로는 방선(訪仙), 환선(喚仙), 우선(遇仙), 등영(登瀛)으로, 신선을 찾아, 불러, 만나서, 노니는 기승전결로 집약하여 전개되고 있다.

셋째, 방선문을 대상으로 한 제영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어휘소인 '선', '영', '령' 그리고 각자에서 발견되는 선계, 신선, 동문, 서왕모, 삼청, 도원 등은 선계의 염원을 담기에 충분한 상징언어가 되며, 사상적으로는 도교적 색채가 강한 선경적 이미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넷째, 방선문은 산악의 계곡폭포와 하천경관이 승경을 이루는 지형지질학적 특성과 전형적 난대성 식물군락이 어우러진 식물생태학적 가치, 그리고 230여개가 넘는 제영시와 각자, 영주십이경의 대상장, '역사, 문학, 구전 등으로 전해지는 전설지' 등 경관 정체성이 입체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다섯째, 방선문은 '영험스런 신선경의 세계로 들어가는 대문'이라는 고유성과 장소성뿐만 아니라 자연 및 문화경관으로서의 학술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제시된 명승의 지정 기준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명승적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복합적 경승지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방선문 주변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므로 한천 상류는 물론 한천 하류 용연 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초기부터 명승 지정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연구가 아니므로 명승 지정 기준에 입각한 세부 전문분야별 학제적 접근을 이루지 못했을 뿐 아니라 명승 지정의 핵심인 지정 구역의 한정에 대해서도 그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근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학제적 접근에 따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주 1. 명승(名勝, Scenic Sites)은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되어 있다(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 1970년 명주 청학동의 소금강이 국가지정 명승 제1호로 지정된 이후 2009년 12월 말 현재 지정된 명승은 총 67건이고, 1건이 지정 예고되어 있듯이, 2005년도 이후 지정 건수가 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 2. 현재 명승의 분류 유형은 6개로 구분되는데, 이를 열거하면 1.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 2.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경관이 뛰어난 곳, 3. 저명한 경관 전망지점, 4. 역사문화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곳 그리고 6.「세계 문화 및 자연의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곳」중에서 관상상 또는 자연의 미관상 현저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 3. 한천의 河口는 용암동의 용연으로 만조 때에 해수가 유입되어 항상 물이 가득 고여 있으며, 높이 7~8m의 수직절리가 펼쳐져 절경을 이룬다. 용궁의 사자들이 백록담으로 통하는 길이었다는 용연은 선비들이 배를 띄워 낚시를 즐기고 달밤에 주연을 베풀어 시흥을 돋우었던 곳으로, 영주12경 중 하나인 龍淵夜帆에 해당한다. 용연에서 약 200m 거리에는 관광명소 중 하나인 龍頭岩이 있다.

주 4. 『탐라지도병서』는 숙종 3년(1709년)에 편찬된 지도로서,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이고 많은 항해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 주위의 24방위 표시와 함께 지형을 실제와 가깝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제주도 사방에 대마도(對馬島), 일본(日本), 유구(琉球), 안남(安南) 등 주변국가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주 5. 절리(튬)로 갈라진 바위에 물살을 받아 바위에서 뜯겨져 나오는 현상으로서 물에 의해서 바위가 갈라지고 깎여나가는 것을 말한다.

주 6. 물에 의해서 굴러온 돌들이 다른 돌들을 깎아 먹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작용의 결과가 포트홀이다. 즉, 자갈이나 모래와 같은 물질이 바위의 움푹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물살에 의해서 계속 돌면서 깎이게 되면 점점 커지면서 항아리 모양처럼 파이게 된다. 폭호는 폭포 밑에서 깊게 파인 웅덩이를 말하며, 이러한 마식작용은 주로 하천의 상류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

주 7. 암석의 일종으로 돌 위의 이끼와 돌 내부의 동일한 성분이 만나서 결합한 것으로 돌 위에 살아버리게 된 것들이다.

주 8. 제주참꽃이라고도 하며 진달래과(Eric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한라산에서 자란다. 꽃은 잎과 동시에 5월에 피는데, 키는 3~6m이고, 어린가지에 갈색 털이 있다(이창복, 2003). 제주도의 한라산 표고 1,100m 이하의 낙엽활엽수림대를 비롯하여 제주도 5.16 산업도로변의 선돌계곡 주변에서 자라며, 5월에 적색의 깔때기 모양으로 개화하며 일본에도 분포한다.

인용문헌

1. 강문규(2003) 한라산 학술대탐사 3 한천. 제주: 한라일보사.
2. 강정효(2003) 한라산: 오름의 왕국·생태계의 보고. 파주: 돌베게.
3. 김계식(2009) 명승 지정현황과 정책방향. 문화재청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4. 김상조 역(1992) 탐라지. 이원진(1963) 耽羅誌. 제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5. 김학범(2009) 한국 명승의 현주소와 과제. 문화재청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6. 김해경(2007) 오늘, 옛 경관을 다시 읽다. 파주: 도서출판 조경.
7. 노재현, 신병철, 한상엽(2009) 탐라십경과 탐라순력도를 통해 본 제주 승경의 전통. 한국조경학회지 37(3): 91-104.
8. 문화재청(2003) 명승지정 학술 조사 연구. 문화재청.
9. 문화재청(2004) 명승지정 학술 조사 연구. 문화재청.
10. 문화재청(2005) 명승지정 학술 조사 연구. 문화재청.
11. 문화재청(2007a)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
12. 문화재청(2007b)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13. 문화재청(2007c)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강원 지역. 문화재청.
14. 문화재청(2007d)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충남·충북·대전 지역. 문화재청.
15. 문화재청(2007e) 전통명승 동천구곡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16. 문화재청(2008a)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유형과 활성화 방향. 문화재청.
17. 문화재청(2008b) 명승 우수자원 지정 정밀조사: 광주·전남·전북 지역. 문화재청.
18. 민족문화추진회 역(1985) 면암집Ⅱ: 遊漢拏山記. 최익현(1931)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19. 박현우(2002)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활용에 관한 관광객과 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신승진(2003) 명승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영월 동강 어라연지역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1. 양정식(1999) 제주도 지명어의 형태와 의미소 고찰.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오문복(2004) 영주십경 시집. 제7권. 제주: 도서출판 제주문화.
23. 오상학(2006) 지도와 地誌로 보는 한라산. 한라산의 인문지리.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24. 이영권(2004) 제주역사기행. 서울: 한겨레신문사.
25. 이위수(2009) 한국 명승의 현황과 전망. 명승의 현황과 전망.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26. 이재근(2009a) 우리나라 명승 지정의 현황 및 개선방향: 한·중·일·북한과의 비교. 전통문화에 새겨진 가치와 의미. 파주: 도서출판 조경.
27. 이재근(2009b) 명승의 개념 및 분류체계 논의. 문화재청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8. 이종묵(2006) 조선의 문화공간 2책. 서울: 휴머니스트.
29. 이진희(2005) 명승대상지 평가인자 적용에 관한 연구: 동해 무릉계곡, 함양 화림계곡을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0. 이창복(2003) 대한식물도감. 서울: 향문사.
31. 제주도·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2006) 한라산의 하천. 제주: 도서출판 각.
32. 제주시·제주문화원(1996) 제주시 옛지명.
33. 최석기(2008) 전통 명승의 인문학적 의미. 전통명승 동천구곡의 유형과 활성화 방안. 문화재청.
34. 한글학회(1984) 한국지명총람 16, 전남편 4. 제주.
35. 현행복(2004) 제주문화의 원류찾기 4. 방선문. 제주: 각출판사.
36. http://jeju.grandculture.net
37. http://local.daum.net/map/index.jsp
38. http://www.cha.go.kr
39. http://www.issuejeju.com/news/article
40. http://www.jejumall.com
41. http://www.minchu.or.kr

원 고 접 수 일: 2010년 1월 7일
심 사 일: 2010년 2월 13일(1차)
2010년 2월 22일(2차)
게 재 확 정 일: 2010년 3월 2일
4인익명 심사필